

갈등 커지는 광주공항 국제선 재유치

광주 관광업계 움직임에 전남 경제계 등 반발

市·道·국토부선 “민간 차원의 일” 불구경만

광주지역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광주공항 국제선 재유치 움직임에 전남 지역 경제계가 반발하면서 무안공항 문제와 양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양 지역 간 갈등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국토해양부와 광주시, 전남도는 ‘민간 차원’의 일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세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남지역경제인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광주지역 일부 관광업계의 광

주공항 국제선 재유치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 움직임은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외면하는 극히 관련한 발상”이라며 “무안공항을 서남권거점공항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방침과도 전면 배치되고, 오히려 광주·전남지역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도 지난 6월 광주와 무안공항의 상생운영이 오히려 적자 원인이 되고 있어 두 공항의 통합운 영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면서 “무안공항을 통한 국내선·국제선 통합운영이 양 지역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안공항의 활용수요는 서남권에 관광레저도시 조성과 F1대회 개최 등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양 지역이 무안공항 활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도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조기 이전되도록 추진하는 등 활성화 대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목포상공회의소도 전날 성명을 내고 “광주지역 일부 관광업계가 무안공항의 국제선을 빼앗아가려고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광주·전남의 상생을 외면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쟁기기로 급급한 소아적 발상”이라며 “서남권의 거점공항

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추 공항이 될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지역 관광업계 종사자 등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된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위원회는 지난 4일 발족식을 하고 광주공항의 국제선 재유치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자치광역자치단체까지 나서면 지역 갈등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여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사원 자체도 있었듯이 한 지역 두 공항 체제로 운영하다 보면 공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항 관리원이 있는 한국공항공사와 국토해양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 대통령 14·15일 APEC 정상회의 참석



이 대통령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4~1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차회의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함께 논의를 종합해 발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제화

- 김종우



열 수도 잠글 수도 있어 문제을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객

10명 중 8명 “또 오겠다”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18일 ~ 11월 9일)의 관람객 10명 중 8명은 차기 행사도 다시 관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지역 관람객이 절반 가량 차지해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전국 각지에서 고루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0%로 차

기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다시 찾겠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시 기간 중 비엔날레 전시관 출구에서 이뤄졌으며, 19세 이상 성인 관람객 1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허용인원 95% 신뢰수준에 ±3.1%.

지역별 관람객 비율은 개최지인 광주 55.4%, 전남 13.9%, 수도권 13.1%, 영남·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이 17.6%로 분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침몰 고려선 박 적재품은 해남 등서 거둬들인 세금”

죽간 내용 분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충남 태안군 마도 인근 해저 침몰 고려선에서 선박에서 인양한 각종 물품은 개경에 기반을 둔 당시 권리자가 해남을 비롯한 지금의 호남 지방에 소유한 개인의 식읍(食邑)에서 거두어 들인 일종의 세금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이를 물품과 함께 64점이 출토된 목간(木簡)과 죽간(竹簡)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고문서학 전공인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획사업단 연구기획팀장은 이번에 발굴된 죽간 6점에 보이는 “대장군 김순영액상 전출 조 일석”(大將軍金純永宅上田出祖壹石)을 비롯해 죽·목간에 등장하는 ‘전출’(田出)이라는 단순히 논이나 밭에서 난 소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족이나 공신(功臣) 등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독점적 세금 징수권을 준 지역인 식읍에서 거두어 들인 공납을 의미한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나로호 실패, 분리화약 지역 폭발 탓”

발사조사위 기계적 결함 등 2가지 원인 추정

나로호 궤도진입 실패원인으로 지연 폭발설이 비중있게 대두됐다.

나로호 실패원인 분석을 위한 나로호 발사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폐어링의 기계적 결함 또는 분리 화약의 지연 폭발이 폐어링 한쪽이 분리되지 않은 원인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여러 면에서 볼 때 한쪽 폐어링의 분리 화약이 위성분리 시점인 이후 540초 시점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연 폭발 됐다는 쪽에 조사결과의 무게 중

심이 실린다는 분석이다.

우선 폐어링 분리 순간을 활용한 동영상은 분석한 결과 이륙 후 540초 시점에서 심한 진동 및 덜컹거림 현상과 함께 폐어링의 확산하는 미세 물질(비산물) 등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통해 “조사위는 540초 시점에서의 진동에 대해서는 화약 폭발에 의한 것인지 기계적 진동에 의한 것인지 추가 분석할 예정이지만 비산물은 화약 폭발에 의해 발

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540초 부근에서 특정 온도 센서(43T011)의 온도가 재차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화약이 뒤늦게 그 시점에서 폭발해서 온도를 높였을 가능성에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폐어링의 기계적 결합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주 환경에서 분리 화약의 폭발 성능을 확인하고 또한 비정상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분석 작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지목됐다. /연합뉴스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연차대회

회를 열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지사 회장 김필식)는 5일 지사 강당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04주년 기념 지사 연차대회를 열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어촌 우수교사 확보

학교·지역 단위 채용

2011년부터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하고 교원을 채용하는 학교·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실시 대상 학교,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학교·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주로 농어촌 지역이 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정희, 혈서쓰고 만주군 지원”

친일인명사전 등재 논란 속 옛 신문기사 공개

‘친일인명사전’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이 실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혈서까지 쓰며 지원했다는 내용의 옛 신문기사가 5일 공개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하면서 서류와 함께 혈서를 썼다는 내용이 담긴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기사의 사본을 공개했다.

연구소가 공개한 기사는 ‘혈서(血書)’ 군관지원, 반도의 짚은 훈도(訓導)로부터’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 기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 중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하였으나 연령 조과로 일차 탈락하였다. 1939년 재차 응모하며 ‘一死以赴御奉公 朴正熙’(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라는 혈서와 채용을 호소하는 편지를 지원서류와 함께 제출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09년 11월 5일 주주총회의로 자본의 총액 금 1,100,000,000원과 증액 300,000,000원을 결정한 감소액 금 1,000,000원으로하고 그 방법으로 주의 금액 10,000원을 1:1비율로 주주소각하여 일괄주식 출수를 161,000주를 121,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포인트 자본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작권자 본 공고 게재일 이일로부터 1개월 내에 당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서는 일괄장소에 비치된 판례서에서 일괄 후 의견이 있을시는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서는 일괄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9. 11. 4
광주광역시 서구 광고 제2009-128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공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일괄장소에 비치된 판례서에서 일괄 후 의견이 있을시는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서는 일괄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9. 11. 4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입안대상 인건
가. 도시계획시설

2. 일괄장소
• 일괄장소 : 서구청 도시개발과 (☎ 062) 360-7464

3. 일괄기간
• 일괄기간 : 2009. 11. 5. ~ 2009. 11. 19.

한일지도판매(주)
한일지도 판매(주) ☎ 062) 524-3059, 062) 529-1409
(광주 북구 운암동 477-2 운암주우소 뒤)

관리지역 세분화 신판지도 출시!!

이번에 새로나온 책은 정부에서 시행한 시·군·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수록

2010년 최신 광주광역시 지번도책 판매 중!

이번에 새로나온 신판 지도책은

◎ 최신 광주, 장성, 담양, 곡성, 화순, 나주, 함평 지번도책 ◎

한일지도판매(주) ☎ 062) 524-3059, 062) 529-1409

목포·무안·영암·신안 4개 지역을 1권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되어나와 판매 중입니다.

상담 문의 ☎ 062) 524-3059 ☎ 062) 529-1409

다산공인증개사

한 010-7154-6996 ☎ 972-8004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 177평, 건물 740평

- 매가 30억

보증금 16억/월세 750만/용자 6억

신축 무인점 매매(여관)

• 토지 460평, 건물 750평

객실 24실(매가 46억)

• 토지 735평, 건물 830평

객실 34실(매가 68억)

상가매매(점단)

• 아파트 5000세대 앞 1층 45평

- 매가 11억

권장임대 : 의류, 편의점, 인력, 푸드

구·합

• 골프 연습장 부지 - 광주권

• 가스총전소 및 주유소 부지

• 청고부지

• 공시지가 50%미만 부동산

• 일반 부동산

부동산 매매, 신축, 임대 등에 관하여 무료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금 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6-2 백악관 예식장

■ 대지면적 : 1770㎡(535평)

■ 지 역 : 준 주거지역

■ 건축면적

구 분	면적(㎡)	용 도

<tbl_r cells="3" ix="3" maxcspan="1" maxrspan="1" used